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을 향한 한국적 과제

백태현
비슈케크 인문대

1. 머리말

중앙아시아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실크로드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제지 기술이 서역으로 건너가 중세의 문명을 꽃피우는 인쇄술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서역에서는 유리제조 기술과 역법 등이 들어와 동양의 다양한 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크로드는 근대 이후보다 영토와 국경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희박했던 고대나 중세시기에 그 중요성을 더했을 수도 있다. 실크로드는 근대를 전후로 하여 구소련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이후에 더 굳게 닫혀 버렸다. 이 같은 단절의 시기에 실크로드는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역사적 질곡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실크로드는 다시 열렸다. 이제 그동안 단절되었던 실크로드 본연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유라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이 실크로드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해가 갈수록 세계 열강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고, 전략적 요충지, 정치경제적 요충지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한국에게도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는 열렸다. 이 지역에 구소련시기 강제이주 된 수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실성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래 한국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¹, ‘현대판 실크로드의 구축’, ‘실크로드의 재발견’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화두는 넘쳐나고 있다. 이제 이런 과제들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한국적 과제로 새 옷을 입어야 하고, 나아가 그 구체적 실천 요강을 마련해 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열강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으며, 사실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현재 가장 공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비록 늦었지만

¹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으로,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한편, 북한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향한 우리의 관심 제고는 환영할 만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현재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에서 물질적 우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열강의 제 전략에 맞서 한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절박함이 느껴지는 때이다.

2.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중요성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육상 및 해상의 신실크로드 복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크로드 지역을 향한 각국의 정치경제적 입장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을 놓고, 가장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물류망 건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경지역 카슈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를 잇는 예 초원길은 2014년 완공되었고, 키르기스스탄의 초원길 요새 도시였던 나린과 남부 지역의 오슈에 이르는 천산남북로를 잇는 옛 비단길도 2014년 봄에 착공되었다.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5가지가 통하는 길을 닦는다는 야심 찬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도로가 통하고, 화폐가 통하고, 무역이 통하고, 정책이 통하고, 민심이 통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²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는 물론 동유럽 등지를 놓고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과의 주도권 싸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근래 실크로드는 에너지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실크로드 지역에 에너지 공급국이 몰려 있는 것도 중국이 공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다.³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도로·철도·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이미 2006년 2,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깔아 막대한 석유를 들여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무역액은 2012년 460억 달러로, 이들 국가와 수교를 맺은 1992년에 비해 100배 늘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5월 8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재확

² Junyang LI(2014), 「Multi-Unity: President Xi's Silk Road Diplomacy」,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³ 박지원(2014), 「유라시아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투르크-중앙아시아: 이해를 넘어 상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참조.

인하며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각각 추진하는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서명했다.⁴ 러시아는 현재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양 실크로드) 즉,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⁵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들 공동체가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러·중 양국이 최근 방위지침 개정으로 대폭 격상된 미일 군사동맹에 맞서 사실상의 안보·군사 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양국의 밀월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향한 러·중 양국의 최근 행보에 비해 미국은 다소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4년 7월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공항 소재 미공군지의 철수로 또 다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은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한 지정학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비교적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와 달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 인구나 중앙아시아의 인구 30억 명을 하나로 묶는 경제공동체의 통로로 키르기스스탄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항공·고속철·육로 등의 확충에 따른 물류 여건 개선을 고려해 중앙아시아 내수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은 실크로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키르기스스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키르기스스탄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그 지형적

⁴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50509003107722>,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50509001811588>, 기사 참조.

⁵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언급한바 있다. 그리고 2013년 9월 13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운명체이자 이익공동체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은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으로 6개 국가는 모두 실크로드의 핵심 교량 국가이다. 이외에도 5개국(아프가니스탄·인도·이란·몽골·파키스탄)의 준회원국, 3개국(벨라루스·스리랑카·터키)의 협력 파트너가 있어 향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성으로 인해 향후 자원개발, 관광, 수력 발전, 농업, 유목, 금융 등의 산업이 유망 시 되는 나라이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이다. 이렇듯 중앙아시아의 소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도 근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적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제는 그 과제에 부응하는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요구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 지역의 다양한 참여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관계국을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국만이 추진할 수 있는 특징적 비책도 필요하다. 이 지역을 향한 한국의 가능성과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수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큰 호재이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을 향한 알타이 언어권 연대에 대한 역사인식 구축과 문화적 상생의 역량을 구비한 중앙아시아 현지의 풍부한 인적자원이 갖추어 진다면 실크로드의 출발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⁶

3. 한국적 실천 과제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 대륙 극동에 위치한 한국과 중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협력은 상생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그 가치를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장차 그 모습이 구체화될 이같은 미래지향적 발전 모델은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특수성과 역사성을 지닐 것이다. 그 핵심은 바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될 ‘한국학’이 될 것이다.

아직도 중앙아시아는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구소련의 학문적, 교육적 시스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학은 동아시아학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 동아시아학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다. 이런 현상은 키르기스스탄 쉬콜라(초중고등학교)의 중고등학생용 인문사회계통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교과서 내의 한국 고대사나 중세사에 대한 기술은

⁶ 백태현(2014),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거의 전무한 편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내용도 아주 소략하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나 현대문화에 대한 소개도 아주 미미하다. 이에 비해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기술된 교과서에는 한국의 정치적 변화상과 경제적 발전상을 나름대로 소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에 비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빈약하다. 아마 이런 경향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어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뭔가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감이 드는 시점이다.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여러 통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국교육원의 개원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의 파견이었다. 1991년 8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이 개원되었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한국교육원은 1992년 5월에 개원되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비슈케크한국교육원은 이보다는 다소 늦은 2001년 5월에 개원이 되었다. 각국의 한국교육원은 그동안 한국어 보급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KOICA 봉사단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학을 중심으로 파견되어 대학의 한국어 보급과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⁸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두 주체 중, 특히 중앙아시아 소재 한국교육원이 근래 내어 놓은 한국어 교육 현황은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그런데 그같은 한국어 교육효과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할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현황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물론 중앙아시아 각국의 교육 현실에 따른 특수성과 차이점은 있겠지만, 대체로 동일한 양상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이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정착에 있어, 한국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가 한국학을 대변할 수는 없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이지만, 대학 4~5년 교육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어 교육에만 소진한다면 이것은 극히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이다.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전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

⁷ 백태현(2014), 「키르기스스탄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번역 및 교육현황 조사 보고서」(미발표), 참조.본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탁 사업이다.

⁸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제 카자흐스탄에는 KOICA 봉사단원이 파견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KOICA 봉사단원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다. KOICA 봉사단원들은 우즈베키스탄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과의 핵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5년 2월부터 소수의 KOICA 봉사단원이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 파견되고 있다.

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 대한 통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정한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전문가가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한국학을 확대 재생산해 갈 수 있는, 한국학 전문가가 배출되지 않는 한국어 교육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기초 한국어교육 시스템과 현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시스템의 재정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지 대학의 한국학 교육시스템에 뿌리를 두지 않은 작금의 화려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그 수치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 정착이라는 우리의 목표의식을 흐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각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현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선택과 집중이다.⁹

21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분명하다. 중앙아시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물론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은 학문적으로 자체 자생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 대학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시스템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향후 효과적인 실천방안의 마련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외적인 요인에 따라 그 자리매김의 시기가 빨라 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학 시스템 구축’의 필수 요건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착 의지라는 것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주입시키려는 한국학이 아닌 중앙아시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부분이다.¹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제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여러 논의를 통해 확인해 바 있다.

4. 맺음말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는 고대부터 한국과도 연관이 깊다. 이 실크로드는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귀중한 것 줄이 될 것이다. 한국도

⁹ 백태현(2014), 「키르기스공화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과 그 과제」, 『2014년도 해외 한국학 파견교수 초청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¹⁰ 손영훈, 김상철(2013), 「21세기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과 발전 방향」,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비슈케크, 키르기스공화국, pp.60~62 참조.

역시 이 실크로드를 통해 사람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상생과 공존의 마음이 통하는 귀중한 통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크로드를 향한 한국적 과제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천 전략의 필요성이다. 먼저 상생과 공존에 바탕을 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한국인의 축적된 지성, 야성, 감성에 바탕을 둔 ‘교육문화분야’의 진출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한국학’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자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각 국가의 발전 정도 및 그 현실적 처지에 따라 그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각국은 한국과 동질의 역사적 연대감 및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큰 공통분모는 있다. 대체로 한국이 간난신고의 역경을 겪고 이루어 낸 정치경제적 경험과 선진적 교육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근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또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학’에 대한 요구 역시 강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학의 토대 구축을 위한 시대적 배경은 아주 좋은 편이다.¹¹

이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 정착을 주도하며, 현장에서 상생의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는 전문적 지원기관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대학에 교수요원을 파견하는 직접 지원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현지 대학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계속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Junyang LI(2014), 「Multi-Unity: President Xi's Silk Road Diplomacy」,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2. 박지원(2014), 「유라시아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투르크-중앙아시아: 이해를 넘어 상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3. 백태현(2014), 「실크로드의 재발견: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만남」,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4. 백태현(2014), 「키르기스스탄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번역 및 교육현황 조사 보고서」(미발표).

¹¹ Baek Tae-hyeon(2010),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ts Future Prospects”, *KOREAN STUDIES ABROA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440.

5. 백태현(2014), 「키르기스공화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과 그 과제」, 『2014년도 해외 한국학 파견교수 초청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6. 손영훈, 김상철(2013), 「21세기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과 발전 방향」, 『2103년도 한국-중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한국-중앙아시아 경제, 문화교류 협력방안” 발표논문집』,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비슈케크, 키르기스공화국.
7. Baek Tae-hyeon(2010),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in Central Asia Its Future Prospects”, *KOREAN STUDIES ABROA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8.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50509003107722>
9.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50509001811588>